

가마도 신사-자연으로 가득한 신사에서 올리는 인연맺기 기원

아름다운 가마도 신사의 경내에서 다자이후시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돌계단을 올라 경내로 들어가면 숲으로 가득한 주변 풍경에 녹아든 것 같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편백나무 지붕의 목조 샤텐(신사의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에는 수 세기 전부터 거대한 편백나무가 자리했으며, 경내에는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

신사는 연애와 인연 맺기의 신인 다마요리비메를 모시고 있으며, 미래의 좋은 인연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연애 성취를 기원하는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여소에서 부적을 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수여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가타야마 마사미치 씨의 작품입니다. 인테리어는 포르투갈산 분홍색 대리석과 벚꽃 문양이 융합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이 자아내는 분위기 속에서 신의 가호가 담긴 다양한 부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을 에마(목제 봉납판)에 적어 경내에 걸어두고 기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여소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는 영국의 디자이너 제스퍼 모리슨 씨가 디자인한 의자에 앉아 다자이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곳의 의자와 벤치는 수 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를 배경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